

교육에 대한 책갈피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책갈피를 선보이며

이번 호부터 주제별 북리뷰를 맡은 송인규입니다. 칼럼의 명칭을 책갈피로 잡았습니다. 책갈피는 책의 어느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한 고안물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책에 관한 “갈피”를 잡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일부러 이의적이 되도록 했습니다.

주제의 선택은 임의적이지 않고 해당 호 월드뷰의 주제를 그대로 좇아갑니다.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3~4권 정도의 책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물론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권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 주로 한글 도서 [한국인의 저술이거나 번역서]를 소개하겠지만, 예외적인 경우 번역이 되지 않은 영서를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책의 소개는 대체로 책의 내용을 알리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어떤 책은 상세하게 소개될 것이고, 어떤 책은 간략한 취급만 받을 것입니다. 어떤 책은 북리뷰어가 상당히 꼼꼼히 살핀 것일 수도 있고, 일부 내용만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으며, 또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단지 겉표지식으로 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리뷰어와 더불어 연관 도서들의 갈피를 헤집어 봅시다!

교육의 주제는 워낙 방대해 어차피 선택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 지침,” “교육과정,” “학벌 현상”으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 지침

여기에서 “일반적 지침”이라 함은 교육 관련 전반 사항에 대한 안내서라는 뜻이다. 먼저, 파커 팔머(Parker J. Palmer, 1939~)가 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종태 옮김, 한국 IVP, 2006년 출간)부터 시작하자. 이 책의 원 제목은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알기: 영적 여정으로서의 교육」(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으로서, 이미 제목 가운데 교육, 영성, 공동체(“우리”), 인격적 관계(“알고 알려지고”) 등의 중요한 사안이 줄줄이 엮여 있다. 팔머 — 실은 “파머”가 더 낫지 않은가 하는데 — 는 웨이커 전통의 영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공동체적 · 상호 연관적 비전을 밝히 드러내면서, 함께 이 길을 걷자고 설득력 있게 악수를 청한다.

이 책자의 앞 부분(pp. 39-40)에서 저자는 도합 7장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기술한다. 1-4장은 자신의 교육관 수립에 기초가 되는 토대적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데, 1장은 지식의 기원론, 2장은 객관주의적 인식 이론, 3장은 관습적 교수 방법, 4장은 진리의 인격적 · 공동체적 개념을 말한다. “가르침이란 진리의 공동체가 실천되는 공간”이라는 기치 아래, 5장은 교사 편에서의 배움을 위한 공간 창조에 대해, 6장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진리에 대한 순종을 실천하는 방도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 7장에서는 그런 가르침을 행하는데 필요한 영성 훈련이 어때야 하는지 설명한다.

만일 좋은 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읽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자기 성찰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파머의 책은 분명 좋은 책임에 틀림이 없다. 과거에도 여기저기 줄을 치면서 읽었고, 이번에도 다시금 내용을 살피면서 불편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

만일 좋은 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읽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자기 성찰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파머의 책은
분명 좋은 책임에 틀림이 없다.

다. 내가 실시한 가르침 (특히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에 있어서) 대부분은 그가 문제로 지적한 바와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해로 반 브루멜른(Harro Van Brummelen, 1942-2014)의 저술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안종희 옮김, 한국 IVP, 2014년 출간)이다. 반 브루멜른은 교사[수학 과목], 교장, 교육과정 조정관을 지냈고, 후에는 교육과정 영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특히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및 기독교적 교육과정의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전자에 해당하는 현 책자는 1988년에 1판, 1998년에 2판이 나왔고, 현재의 번역본은 2009년에 간행된 3판에 기초한 것이다.

이 책은 기독교 학교나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책의 목차만 훑어 보아도 이 책자가 의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1부 학교 교육과 가르침

1장 학교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인가?

2장 기독교적인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2부 학습 계획

3장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4장 의미 있는 학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5장 학습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3부 학습 공동체 만들기

6장 학급 공동체를 조성하려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7장 다양한 학습자를 어떻게 포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가?

8장 서로 돕는 학습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4부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9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공립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책자의 내용을 촉발시킨 삶의 자리가 캐나다라는 점을 유념하기만 한다면, 우리나라의 크리스천 교사들 역시 이 책으로부터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교육과정(curriculum)이 교육의 전부라고 하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실제상으로는 동의하지 않을 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교육과정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은 거기에 교육의 모든 것 — 교육의 본질적 성격, 목표, 학습 계획, 교수 방법, 평가 등 — 이 녹아 있다고 할 수있기 때문이다.

이토록 중요한 교육과정의 영역에 있어서 두 권의 돋보이는 책자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한국인의 저술이고 또 한 권은 번역판이다. 하나는 기독교 신학과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를 둔 학교 교육에 집중한다. 하나는 신학교나 기독교 교육학의 맥락에 적합하고 나머지 하나는 중·고등학교의 교육 현장에 안성맞춤이다. 하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목회자와 교육 목사에게 의미심장할 것이고, 또 하나는 크리스천 교사들과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전자는 박상진 지음, 「기독교 교육과정 탐구」(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년 간)이고, 후자는 다시금 해로 반 브루멜른 지음, 이부형 옮김,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한국 IVP, 2006년 간) [원본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 (Colorado Springs, CO: Purposeful Design Publications, 2002)]이다.

「기독교 교육과정 탐구」는 기독교 교육이 일반 교육과 달리 신앙(faith)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신앙을 “하나님 알기”(knowing God)로 규정함으로써 논의를 출발한다 [제 1 부]. 신앙이 곧 “하나님을 앎”이라는 것은 먼저 칼빈에게서 선명히 드러나고, 이어 칼 바르트, 에밀 브루너, 리처드 니버 등의 신정통주의 계통의 신학자들에게서도 확인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알기”에서 앎은 어떤 인식론적 특성을 갖는가? 저자는 전술한 네 명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비교·종합해 볼 때 거기에서 인격적 앎(personal knowing), 공동체적 앎(communal knowing), 상상적 앎(imaginative knowing), 참여적 앎(participatory knowing)의 네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서 이 책자는 인식론적 탐구 [제 2 부]에 크게 역점을 둔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하나님 앎과 기독교적 교육과정의 기초를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먼저 저자는 현대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인식론의 흐름을 데카르트, 로크, 칸트에게서 찾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1) 객관주의적(objectivistic)이고, 2) 개인주의적(individualistic)이며, 3) 상상 경시적이

고, 4) 관객 조망적(spectator-like)이다. 이러한 근대 인식론은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던적 인식론으로부터 직격탄을 맞고야 말았으니, 그 이유는 새로운 인식론의 특징이 인격적, 공동체적, 상상 의존적, 참여적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런 설명은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i, 1891-1976), 마크 존슨(Mark Johnson, 1949-), 더글러스 슬로언(Douglas Sloan)이 내세운 바 새로운 인식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중에서도 단연코 영향력을 크게 발휘한 것은 폴라니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론의 변화에 발을 맞춘 교육 이론가는 누구일까? 저자는 파커 파머(Parker J. Palmer), 제임스 로더(James Loder), 그리고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 3인을 대표적 예로 든다.

저자는 자신의 모델[제 3 부]을 제시하기에 앞서 두 가지 선행 작업을 시도한다. 우선, 소극적 작업으로서 전통적 커리큘럼의 사상적 원조인 타일러(Ralph W. Tyler, 1902-1994)식 커리큘럼 모델을 비판한다. 그리고 나서, 저자 자신의 모델에서 핵심 개념이 되는 “성육신적 상상”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한다. 드디어 성육신 커리큘럼 모델의 전모를 다음과 같이 밝힐 수 있게 되었다.

- 1) 목적: 하나님 알기
- 2) 내용: 하나님의 형상
- 3) 범위: 예배, 선포, 가르침, 교제, 봉사
- 4) 장: 가정, 교회, 학교 등
- 5) 작성의 원리: 인격적, 공동체적, 상상적, 참여적
- 6) 표현 양식: 육화된 이미지
- 7) 특성들: 타일러식 커리큘럼 모델에 대한 대안적 특성들

저자는 기독교적 커리큘럼의 수립에 있어서 신학과 유관 학문 사이, 이론과 현장 사이의 균형 및 통합을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다만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하나님 알기”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과연 그런 것에 동의하고 또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또 오늘날 한국인들은 근대적 과정조차 제대로 겪지 않았으므로, 포스트모던적 응수를 마땅한 해법으로 여기는 서양식 접근이 과연 한국의 실정에 얼마나 적실할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반 브루멜른의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은 리뷰어가 보기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부분은 총론에 해당하는 1-3장의 내용인데, 교육 과정의 의미와 목적(1장), 교육과정의 네 가지 유형(2장),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과정(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부분인 4-8장은 각 과목의 수업을 염두에 두었다는 의미에서 적용에 해당한다. 그것은 지식과 교육과정(4장), 학습과 교육과정(5장), 교육과정의 기획(6장), 수업 단위 기획(7장), 교육과정의 과목(8장)이다. 마지막 부분인 9장은 교육과정 리더십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반 브루멜른의 책은 이론과 실천이 튼실하고 적실하게 연계되어 있고, 실제적 학교 수업의 경험이 배어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한 두 가지로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 환경은 북미 상황과 많이 다르고 특히 문화적·사회적 성격에 있어 적잖이 차이가 나므로, 항시 역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ce)의 원리에 비추어 생각하는 버릇을 길러야 할 것이다.

학벌 현상

이제 우리는 한국인 본연의 해 오랜 고질과 맞닥뜨렸다. 한국 사회는 학벌이라는 병리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집요한 철학적 작업을 벌인 것이 김상봉, 「학벌 사회: 사회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한길사, 2004년 간행)가 아닌가 한다. 리뷰

내가 일선의 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결코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교육가이고,
또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괴물 같은 교육 현실을 놓고
함께 끙끙거리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이기에
일반인으로서나 기독교인으로서나
이 주제를 피할 길이 없다.

어 역시 이 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 했기 때문에 무어라고 논평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책이 한국 사회의 학벌 현상에 대한 분석과 진단, 대안의 제시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예감만큼은 떨치기 힘들다고 하겠다. 이 책은 서론과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저자는 “서로주체성”이라는 이념을 도입하여 사회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힘쓴다. 이것은 사회가 “우리”라는 공동주체임을 깨우치고, 학벌은 사회적 공동주체가 서로주체성을 파괴하고 왜곡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 생기는 병리 현상으로 해석한다. 이어서 펼쳐지는 6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권력의 독점과 사회적 불평등
2. 학벌과 사회적 주체성의 문제
3. 학벌과 교육의 파탄
4. 학벌과 국가 경쟁력의 위기
5. 교육의 이념과 학교 평준화
6. 학벌 타파의 구체적 대안들

학벌 현상과 맞물려 있는 사회적 난제가 대학 입시에 대한 것이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위임,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예영커뮤니케이션, 2008년 간행)는 이에 대한 기독교적 반응이다. 이 책자에서 박상진, 김희권, 김창환, 강영택 등 4인의 저자는 입시 문제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조망하고 있다. 이것이 대학 입시에 대한 해결책이나 해소 방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광범위한 논의의 출발만큼은 충분히 도울 수 있으리라 믿는다.

교육 — 내가 일선의 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결코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교육가이고, 또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다(혹은 부모가 될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괴물 같은 교육 현실을 앞에 놓고 함께 끙끙거리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나 기독교인으로서나 이 주제를 피할 길이 없다.



글 | 송인규

한국기독교학생회(IVF)의 총무로 역임하였으며,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으로 있다